

**'91년초** 美 국방부의 고민은 걸프사태와 체니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연두교시후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할 '92회계년도 국방예산 요청에 집중되었다. 예를들어 유엔의 쿠웨이트 철수시한을 이라크가 어기고 전쟁이 피할수 없는 것이라면 미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1월초 베이커 국무장관은 이라크 외무장관을 만나서 전쟁을 막을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에 갔었다. 그러나 서로 반대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다.

미국은 쿠웨이트에서의 안전한 이라크 철수를 주장하는 유엔의 결의안을 계속 고집할 것이고, 이라크는 경제 및 정치적 양보 즉 쿠웨이트의 항구와 석유생산 시설에 대한 통제수단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세계회의가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후 열릴 것이라는 신호를 얻을수 있는 상황에서만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이다.

- 미국은 쿠웨이트 군사시설의 이라크 지배와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초기의 국제회의의 현실성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에만 동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향한 주요조치가 이라크의 압력과 이라크군대 철수 희망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제의하는 동안 전혀 합의된 것이 없다.

- 미국이나 이라크 어느 국가도 전쟁을 위한 빈틈을 벌려 놓은채, 그 어느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과 동맹군은 쿠웨이트의 주권을 회복시키기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다.

- 유럽과 의회지도자들로부터의 유엔과 미국 대통령에게 제재조치의 압력을 계속 가하고 군사적 선택을 중지하도록 확신시킬 것이다. 美 국방부는 걸프작전의 추정비용이 '90년 8월 이후 2배로 증가되었지만, 전쟁준비를 강화시킬 것이다.

상반되게도 美 국방부는 장차 전투지원에 필요한 루트를 확보하면서, 미국이 많은 전투

병력을 단일한 장소에 유효하게 파견할수 있는 세계의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1월 중순까지의 사막에 막대한 미군 병력의 파견은 사담 후세인의 50만 병력에 대항하여 쉽게, 또 결정적으로 승리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병력이다.

5개월간의 준비와 이라크의 행동에 대한 감시가 있은후에도 미국이나 혹은 다른 군사전략가, 외교관, 정보통신원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전투의 양상과 규모를 논할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비효율성에 반대하는 소리가 아니다.

전쟁, 경제, 혹은 정치의 정밀성은 국방부가 베트남 전쟁시 배운 수학적인 정밀성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것이 합치될때 정치, 경제, 전쟁에 대한 3가지의 예견능력은 바카라 게임에서 다음 카드(패)를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

1월에 국방부에서 어떤 확실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산현실성에서 생긴 것이다. 어떤 이론들이라 하더라도 한가지는 위기이후의 방위에 적용된다. 이와같은 3개의 문제는 91회계년도 지출논의시 미해결되었던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한된 예산, 장비, 인원의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다. 미국은 또다시 국방부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방위를 하도록 하는 불가능을 요구할 것이다.

12월과 1월에 고위 국방부 획득관리는 91년 10월 1일까지 장비구매에 대한 4백50억불과 더불어 그가 2천5백억불이상의 배당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10월 1일은 92회계년도 예산의 인도를 위한 마감시한이다. 이것은 각군과 방산업체들의 기운을 돋구게 하지는 못하지만, 안정성을 느끼도록 현상태를 거의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고위 국방부 관리들은 각군 총장에게 그들의 장비희망목록을 무자비하게 조사하고, 사실상 가장 빈약한 개개의 예산요구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 강력하게 삭감하도록 조언을 하였다.

1월에 베이커 국무장관과 체니 국방장관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인도용으로 '90년 10월에 작성한 약 10조원(1백40억불) 상당의 방위장비 판매의 무한정한 연기에 동의를 하였다.

몇몇 전문가들은 MD사의 F-15 전투기와 GD사의 M1A1 주전차, 또 高價의 방위장비를 제공하는 이 거래에 대한 동결 목적은 걸프사태가 종결되도록 하고, 사태이후 재평가기간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른 전문가들은 동결이유가 주로 국방부로 하여금 F-15와 주전차를 유지하게 하여 값비싼 장비현대화 계획을 취소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체니 국방장관의 약 40조원(5백40억불)에 달하는 GD/MD사의 A-12 해군 스텔스 전투기 계획의 후속적인 파기는 이러한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걸프지역에서의 전쟁과 관련하여 군사전문가인 Marvin Leibstone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상반되는 감정으로 전보다 전쟁에 더욱 가깝게 되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갈고리도 가깝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갈고리를 잡는 것이 쉽게 되었지만, 후세인이 생각하는 가치 구조는 그가 전쟁대신에 평화로부터 얻을수 있는 것이 많다고 믿을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에서 생긴 잉여는 「High Yield(고수익)」가 아니다.

만약 어떤 정책결정가처럼 후세인이 세계적인 시각에서 작전한다면, 그는 평화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지역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평화는 그가 양보를 얻을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후세인이 지역적인 혹은 개인적인 시각에서 결정한다면 그는 아마도 전쟁을 선택할 것이다. 이유는? 아마 그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사실상 후세인의 자아에 대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다. 후세인이 무엇을 하든간에 나는 후세인이 체면을 유지할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평화에 합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첫번째 공격을 시도할 유엔의 결

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의 철수시한을 이라크가 거절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무엇인가?

1월에 제재조치가 몇 주 지난후 유엔은 첫째로 쿠웨이트에 있는 이라크 목표물에 대해 엄청난 공습을 감행할 것이고, 이어서 선택된 쿠웨이트 지역내와 주위에 있는 이라크 군사력에 대하여 지상 및 해상공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월중순경 '92회계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나의 이론은 사실과 과거의 행동에 더욱 기초를 두고 있다. 국방부가 현실성이 다분한 지출품목을 다시 제출할 것이다.

이것은 고가 및 위협과 관련된 장비요구로서 철저히 합리적인 수용성을 가진 것으로, 여기에는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하여 희생될수 있는 몇몇 제품들이 있다.

다음 몇달 동안에 의회는 냉전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81밀리 박격포소대나 권총보다 더 큰 군사적 지위가 정당성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의원들과 몇몇 장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하나는 확실히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계속하여 살 것이고, 제한전과 저밀집분쟁, 및 긴급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하지만 경우에 따라 정당화되는 강력한 군사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는 쪽이다.

후자가 토론시에 우세하지만, 감소되는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국 군수장비 제공능력은 다소 초과상태에 있지만, 계획상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와 방산업체를 위해서는 약 1백80조원(2천5백억불) 이상의 예산과 함께 적합한 장비획득 계획과 같은 것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旭)

〈Miltech 91/2〉